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페이스북

KAPC 제 43회 총회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양수철 총회장, “총회로부터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이하 KAPC) 제43회 총회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시편 106:3)”라는 주제로 5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임원선거에서 관례대로 총회장으로 추대된 양수철 목사는 “부족한 종이 앞으로 총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첫날 개회예배에 이어 진행된 성찬예식에서는 엄영민 목사가 집례

와 설교를 맡았다. “언약의 피”(마태복음 26:26-28)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엄영민 목사는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취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물과 피를 쏟으셔서 산 총회와 교회이다. 우리 총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앞으로 깊이 묵상해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사진촬영을 마치고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10여명의 목사 고시 합격

자들이 합격 증서를 받았다. 김재열 총회장(42회)은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총회에는 친실사절단으로 예정 합신 총회장 홍동필 목사, 개혁 총회장 박만수 목사, 고신 총회장 김성복 목사 등 총 11여명이 참석해 총회 일정 각각의 예배 설교를 맡았다. 또 이튿날 ‘선교의 밤’을 통해 4명의 예배 선교사들이 니과라과, 모르타니아, 볼리비아, 에콰도르로 파송됐다.

토마스 맹 기자

美 교계, ‘LGBT 평등법’

반대 천명 “종교자유에 위협”

그레함 목사 등 21명, 의회에 우려 서한 보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제임스 스펀 박사 등 미국의 저명한 21명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LGBT 평등법안(pro-LGBT Equality Act)이 종교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미 상·하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보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제임스 스펀 박사 등을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시민 운동가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회장과 신앙과 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 랄피 리드 대표, 텍사스 소재 메가처치 담임목사들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로버트 모리스, 토드 와그너, 전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셸 버크먼 하원의원, TV 전자제임스 로빈스 목사, 전 남침례교 회장인 잭 그레함 목사, 보수 기독교 논객인 에릭 메타스 등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HR5’로 알려진 이 평등법안은 1964년 통과된 민권법안에 ‘성적 취향과 성(젠더)정체성’ 뿐 아니라 ‘인신, 출신 또는 관련 건강 상태’를 근거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 숙박시설, 공공설비, 교육현장, 연방자금, 고용, 주택, 신용카드, 법원 등에서 성적 성향과 정체성에 따른 개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 LGBT 뿐 아니라 낙태 등을 모두 민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현지에선 성소수자 관련 역대 법안들 중 가장 강력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를

[2면에 이어서 계속]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미국 다수 주(州)서 커지는 ‘낙태 금지’ 목소리

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후 광범

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주리주 의회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많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어서 상원을 통한 낙태 금지법이 큰 반대 없이 통

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발표까지는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임신 8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할 경우,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개강: 6월 1일(토) ATI 대학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4th Joint Youth Retreat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THE FAITH

기간 : 2019년 7월 22일(월)-24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대상 : 6-12학년 중등부 및 고등부 (2019년 9월 기준)
 등록 : 6월 21일(금)까지 (선착순 100명)

신청 : www.lafgc.com
 문의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 Email: lafgcd@gmail.com



새일교회가 새생명전도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새일교회, '2019 새생명전도축제예배' 드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에 아직도 공사중"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새일교회(정병노 목사) 새생명전도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열린 2019새생명전도축제예배는 1부예배 2부 친교의 시간으로 열렸다. 녹 19장1-1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병노 목사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동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열망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예배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교회를 용서해 달라. 그러나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에 아직도 공사 중이다. 중요한 것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목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다.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의 초대와 초청에 응답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새생명축제예배 후에는 전도축제준비팀들의 찬양과 공연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나눴다. 새일교회는 '2019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온 성도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전도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 21일 릴레이장정기도와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 등 온 성도가 헌신하며 참여했다. 정병노 담임목사는 "새생명전도축제를 준비하며 새일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섬김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귀한시간이었다. 한 마음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1면 美 교계 'LGBT 평등법' 에 이어서]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7일 찬성 263표, 반대 173표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여성의 권리와 종교자유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성경) 및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자유와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성행위를 피부색, 민족성과 같은 불변의 특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평등법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공개적으로 모순되는 거짓말(살전 4:3-8)"이라며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이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법안의 통과는 LGBT 평등이라는 거짓말을 전국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교육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LGBT 평등법안은 종교

자유와 보호를 제거하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민권법의 고용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 지도자와 다른 직원들이 결혼, 성행위 및 남녀 구분에 대한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종교를 가진 고용주가 호르문 요법, 성전환 수술 또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보훈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요청을 부모가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보편화 될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서한은 또 "LGBT 평등법안은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폐지시켜, 종교인들의 종교자유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이같은 제한 속에 복음의 통로가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새러 크래머 대변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회와 종교단체들은 직원들에게 결혼, 성도덕, 성구분 등에서 종교적 확신을 전해 내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성구분이 특화되어 온 시설과 설비를 개방하게 되어 특히 여성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



이에스터 박사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는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 강좌를 18일 오후 3시 30분에 이에스터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개최했다.

새언약 아카데미 20회 졸업생, 명문대 · UC계열 합격



새언약 초중고등학교가 5월 16일(목)에 제 20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우수한 학교를 찾기 쉽지 않은 LA 한인타운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새언약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가 5월 16일(목) 오후 6시에 학교 강당에서 제 20회 졸업식을 거행하며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다음 20년을 준비했다. 졸업식은 제이슨 송 교장의 환영사, 조셉 채 교감의 기도, 조나 강 스투던트 액티비티즈 코디네이터의 슬라이드쇼, 핸드벨 합창단의 특별 공연, 유치원부터 3학년 학생들의 발표, ACSI(국제크리스천학교협회)

디렉터인 Cecil Swetland 박사의 졸업연설, 태민 윤 학생의 졸업생 대표연설, 특별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올해 해사에 합격한 Ami Kim 학생에게 Estrada 대령이 공식 해사 임명증서를 선사했다. 미국의 사관학교들은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가 될 것이기에 임명장을 증명한다. 미국 사관학교에서 장교 1명을 배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총 금액은 약 50만불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생 17명은 UCLA, UC 얼바인 등 UC계열 및 미

해군사관학교, 카네기멜론대학, 브라운 대학, 노터데임 대학교 등 명문대 입학에 앞두고 있으며, 총 300만불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았다. 제이슨 송 교장은 "20주년을 맞이해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신 부모님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사진 및 교사들, 학생들, 다 감사할 뿐이다"라며 "지난 20년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이라 믿고 전심을 다 해 뛰어왔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분교 배움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개 세미나, 감사예배 & 리셉션, 신대원 인텐시브세미나.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IM 선교회 미주 본부장 김인구 목사(예수사랑교회)

IM선교회, 미주 청소년 초청 한국 비전트립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비전 발견하는 기회”

IM선교회(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미주 청소년들을 한국 비전트립에 초청한다.

IM 선교회는 한국, 필리핀, 중국, 멕시코, 브라질 각 지역에서 차세대 리더십을 키워가는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LA지역에 미국지부가 설립됐다. 이번 트립은 미국에 있는 한인 2세 청소년들(14-18세)을 한국과 필리핀에 초청해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한국문화 체험하고 IM선교회 소속 학생들과 교류하며 킴빌더로서의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김인구 목사는 “리더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실, 누가 가면 어떤가. 아이들이 가서 변화되지만 한다면 미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상황상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보내고 싶다.” 고 말했다.

“저희 교회 가정의 남매를 보내는데, 그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성령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체험할 것이고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IM선교회 캠프에서 여러 번 집회를 해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은 나무로 성장해 있다. 기도, 영성, 말씀뿐만 아니라 밝고 예의가 밝다. 보통 아이들과 눈빛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행복감이 미국에도 전이되길 바란다.”

다. ‘저는 학교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비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다 보니 5개 그룹의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아이들의 환경, 학습 능력이 모두 달랐다.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커리큘럼을 5개로 분류했고 그 결과 현재도 IM선교회 안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5개의 학교가 분류되어 있다.

IM국제학교에서는 성경을 기초로, 미국에서 홈스쿨 교재로 사용되는 A.C.E.커리큘럼(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을 도입해 사용한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져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리더로 키워내고 있다. 미 연방정부 교육협회의(SACS-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 and Schools)로부터 공인 받은 과정으로 학업을 마치면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게 된다. 현재 학생수는 한국에 1,000명, 필리핀에 1,000명 정도 총 2,000명 정도가 있다.

비행기 티켓 비 외 다른 체류 비용은 무료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어, 한국 미션트립, 트리플 스쿨, 한국문화체험(전주한옥마을), 필리핀 미션트립 등으로 구성되고 서울 외에도 광주, 여수 등을 방문하게 된다. 비용은 비행기 티켓비(약 1,400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숙식과 체류 비용은 선교회에서 부담한다.

이번에 열리는 제 1차 한국 비전트립을 앞두고 IM선교회 미주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사랑교회의 김인구 목사를 만나 이 행사의 의미와 취지, IM선교회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10명을 모집하며, EM목사가 인솔자로 데려간다. 모집 대상은 리더십을 세울 만한 아이들이며, 그들은 그곳에 가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 여기서 가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은 여기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크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을 배정했다. 장점은, 여기 아이들이 한국어가 미숙한데, 한국 아이들과 한달 동안 생활하며

이민가정 자녀 문제는 교회의 책임

그는 세대차이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목도하고 있는 미주 땅에도 IM선교회의 비전과 틀이 필요하며, 이번 트립이 자리나오는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엄마의마음장학회가 제5회 기도후원의 밤을 5월 18일 갯즈패밀리교회에서 열었다.

엄마의 마음 장학회 장학생 모집

5월 18일 기도후원의 밤 개최

엄마의 마음 장학회가 제5회 기도 후원의 밤을 5월 18일(토)에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에 있는 갯즈패밀리 교회(God's Family Church)에서 열었다. 후원의 밤에서는 전년도 장학회 운영을 보고하고 장학금 수여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낭독하며 후원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후원자의 간증을 들었다. 이어서 남가주 사랑의교회 이성재 목사가 설교하고, 합심기도를 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의 마음 장학회는 2015년 창립 이래 매년 한 부모 자녀들을 우선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장학금 종류로는 한 부모 자녀장학금을 비롯해 신학생 장학금, 미자립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사녀 장학금, 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일반 장학금이 있다.

올해로 창립 5회째를 맞아 지금

까지1회에서 4회에 걸쳐 4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고, 매 학생에게 1,000불씩 총 \$41,000을 지급해 왔다. 올해도 한 학생당 1,000불씩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식 없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수여식을 대신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대학 및 대학원 풀타임 재학생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박사과정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재정확인서, 개인 에세이, 추천서, 성적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이며 서류양식은 웹사이트(<http://m.blog.daum.net/head1966/10324519>)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29일 토요일까지이며 반드시 우편(P.O. BOX 6214 Buena Park, CA 90622)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문의 전화는 714-402-6482로 하면 된다.

“이민교회 가정의 가장 골이 깊은 곳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 학습의 차이, 언어의 차이이다. 그것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것은 학교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이기 보다는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제 소망은 LA안에서도 이 학교를 여는 것이다. IM학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틀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아이들을 무장시키고 복음을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비전을 열어주는 것이 IM학교의 가장 중요한 틀이다.”

“아이들에게 설교하면 제가 느낀 감격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의 본질 앞에 자기 비전과 삶의 순종을 드리고 그 비전에 맞춰 자기를 성장 발전시키는 그 시스템이 참 아름다운 것 같다. 남미 땅에 또 다른 국제 학교를 세우는 것이 미주 본부의 비전이다.”

이 비전캠프의 모집기간은 6월 1일(토)까지이며, 문의 및 신청은 김인구 목사(213-700-4689)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움직이 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아보시고 르세르보~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Enrolling K-9 for Summer Program

June 3 to July 26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S. Highland Ave

Wilshire Blvd

Now Serving K-3
at New Campus!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13>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다녀와서(3)

오늘은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뒷모습을 나누고 싶다. 필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열방의 선교지도자들과의 개인적 교제를 통해 여러가지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들은 먼저 300명에 이르는 청년 스텝들의 눈부신 헌신적 사역을 말했다. 공항과 화령 터미널 등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청년 차량부 스텝들의 열방센터까지의 참석자 운송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했다. 밝은 미소, 친절 한 말씨 그리고 필요한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등이 놀라웠다 했다. 열방센터에 도착한 외국 참석자들은 수심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체크인 서비스 데스크에 안내를 받고 이름표와 숙소 배정 등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받았다. 숙소 건물들이 많은 데 건물 앞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이름이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방 번호들이 쉽게 보여 불편 없이 자기 숙소를 찾았다. 필자도 그런 과정을 통해 방을 배정 받았는데 30명이 함께 자는 큰 룸이었다. 30개의 개인별 침구가 이미 잘 정돈되어 깔려 있는 방에 들어가 비어 있는 자리를 하나씩 차지 하면 되었다. 필자의 좌우에 러시아 목사와 우즈베키스탄 목사를 비롯해 방안에는 튀니지, 터키, 필리핀, 이란 목사 등 열방의 각국 목사들이 그렇게 방을 얻었다.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열방의 형제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굳게 믿으며 밤을 같이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코골이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 코골이 때문에 못 잤다 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들이 아이들 같았다. 취침 전에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날의 집회에 대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너무도 값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많은 열방의 지도자들은 우리 청년 스텝들의 봉사 중에 특히 대부분의 청년들은 참석자들의 숙소 배정에 방이 모자라서 수백명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집회장 바다에서 새우잡을 잡는데도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넘치는 힘으로 자기의 말은 은사에 따라 예배팀을 섬기고 음향팀을 섬기고, 예전으로 섬기고, 각 숙소 안내, 의료팀, 차량지원팀, 주차안내팀, 통역팀, 주방팀 등 많은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이구동성 극찬을 한다.

청년스텝들의 행동은 매우 빨랐다. 여쭙던대지 않는다. 발끝을 세우고 거의 뛰다니며 사역을 한다. 기쁨이 넘친다. 하나하나 열정이 있다. 열방의 지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봉사가 식사 주방 봉사이다. 4천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1시간 30분안에 다 해결한다. 한식부와 양식부의 식단을 나눠서 외국인들에게는 혹시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양식부를 운영했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긴 줄을 선다. 그러나 그 긴 줄이 곧 줄어들고 질서 정연하게 모두가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다. 상주 열방센터는 산으로 둘러 덮인 너무도 아름다운 시골 마을 길목에 있다. 식사 후 삼삼오오 그 산길들을 걸으며 선교센터 안팎을 산보하는 참석자들의 발걸음들은 다 행복하다. 사진을 찍는 행복에 잠긴다.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82개국의 4천 여명의 참석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형제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2년 후 제 6회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기약하였다.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단체사진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3회 정기총회 총회장 최인근 목사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제43회 정기총회가 “우리를 사용하소서(사 6:1-8)”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에서 열렸다.

WKPC는 이번 총회에 23개 노회에 총대 292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본 총회와 형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과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가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축사를 했다. 수요일 저녁에는 본 총회산하 WMS 세계선교회 선교의 밤에 이승희 목사가 설교를 하고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가 선교특강을 했다. 이날 총회 선교사 파송식에서 스티븐 노 선교사와 그레이스 노 선교사를 과테말라로, 서병길 선교사와 서카라 선교사를 이스라엘로, 석창균 선교

사와 석현명 선교사를 칠레로 파송했다. 21일 오후 7시부터 개회예배와 성찬식이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사회 최인근 목사(부총회장), 기도 김상태 목사(뉴욕남노회장), 성경봉독 정진식 장로(부총회장), 찬양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글로리아 찬양대, 설교 조의호 목사(총회장), 광고 신상원 목사(총무), 축도 박재웅 목사(미주서부)로 진행됐다. 성찬예식 집례 김기섭 목사(서가주), 기도 김명식 목사(대서양), 성경봉독 고주모 목사(LA), 설교 김기섭 목사, 분별과 분잔, 축도 홍명철 목사(뉴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회원회명, 개회선언, 환영사 서보천 목사(총회준비위원장), 절차보고, 임원선거 공천부, 신구임원교체, 휘장 분배 시애틀빌립보교회 여선교회, 취임인

사 신임 총회장, 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친선사절단 인사, 광고 출석위원 지명, 회록채택 후 상비부 조직 보고와 사업보고를 위하여 정회되었다. 총회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최인근 목사(시애틀빌립보교회, 시애틀노회), 목사부총회장 정우용 목사(예일교회, 워싱턴노회), 장로부총회장 정진식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서기 나정기 목사(이레교회, 미주서부노회), 부서기 한성수 목사(ELPIS COM CHURCH, 남가주노회), 회록서기 서보천 목사(둘로스교회, 가주노회), 부회록서기 송영일 목사(휴스턴생명교회, 중남부노회), 회계 김준경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부회계 김원석 장로(필라사마교회, 뉴욕노회)



창대장로교회가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창대장로교회, 어르신들 풍성한 잔치로 섬겨

창립 20주년을 맞은 창대장로교회에서는 5월 19일 주일 오후 4시에 샌버나디노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올해는 샌버나디노 뿐만 아니라 엘레이와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필렌(Phelan) 등 각지에서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예배는 창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권철균 목사의 기

도, 이춘준 목사(창대장로교회)의 설교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고재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권철균 목사가 진행한 2부 본행사는 다우니 아가페 교회 청년들과 유치부의 찬양율동, 창대 바디워십팀의 바디워십, 이은정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 권지성 학생의 틴 휘슬 연주, 스페니쉬교회 청년의 피아노 솔로와 찬양 순으

로 진행됐다. 70-80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부모 선교회가 우크렐라 연주와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으며 UCLA의 국악팀은 장구춤과 부채춤을 선보이며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갓스이미지 학생들이 구성된 댄스팀은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 정홍이 목사의 기도 후 식사 교제하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미성대학교 제17회 학위수여식 및 류종길총장 퇴임식

AEU 17th Commencement & President Ryu Retirement Celebration

미성대학교 제17회 학위수여식 및 류종길총장 퇴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장 류종길 박사

미성대학교 제17회 학위수여식과 지난 8년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시는 류종길총장 퇴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6월 1일(토) 10:30 AM
 장소 : 시온성결교회(최경환목사 시무)
 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T.(323)734-0007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류종길총장의 “목사안수 45주년 기념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학위 수여 대상자

- 신 학 사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5명
-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 6명
-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명
- 상담학석사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4명
- 목회학박사 (Doctor of Ministry) 4명
- 상담학박사 (Doctor of Counseling) 6명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성대학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Email : info@aeu.edu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누가복음 10:25-3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누가복음 10:25-37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어떤 율법사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가르침을 기대해서 영생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던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5이하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답이었습니다.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진정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은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이 있는데, 영적인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레위기 17:11의 말씀처럼 육적인 목숨은 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12부터 보면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며,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는 육체의 세상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무화과는 생존의 의미가 없으니 생리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제자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6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더욱 강건하고 윤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

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기(氣)와 혈(血) 두 가지가 생명체로 활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세상조건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보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기와 혈에 공급되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작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구원을 얻었고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갈 믿음을 가꾸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영적인 성과, 많은 영혼을 지옥 길에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 때 내 육체의 사는 목적을 그것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봉사와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적 봉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두고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껏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것을 옳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의식화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8-9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애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가지 유형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762M나 높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면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35KM입니다. 이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겨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못본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게, 돼지처럼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날 길을 떠나며 주막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책임하듯 질문하지 않았고 그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고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입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

현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의식과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17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강령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며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욱 더 아낌없는 지원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38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네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네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성패(成敗)를 결정지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10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영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외),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가정의달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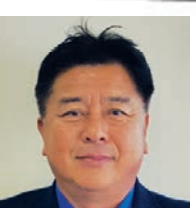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미주다일공동체 이사회

다일공동체, 고독사예방을 위한 '밥퍼 재건축' 동참 촉구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밥퍼 재건축'에 애틀랜타 교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16일(목), 돌루스 소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미주 투어를 앞두고 최일도 목사는 "서울시 통계 가운데 고독사 위험군이 9만 명으로 집계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훨씬 크다. 문서상으로는 가족이 있지만 실재는 혼자 거주하며 외부와 관계가 완전히 끊겨 관계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 하면 서울시 안에서만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홀로 죽어 시체가 썩은 악취 때문에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보다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현 상황을 나눴다. 이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 청량리역으로 집계되는데, 그곳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 센터가 이왕에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을 진행해 온 만큼 재건축 되는 센터 안에 '윈스

탐 복지시설'을 갖추고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이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을 수 있는 침상을 갖춘 고독사 예방센터 만들 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섬김과 나눔의 아이콘' 밥퍼센터는 실제 서울시 시유지에 지어진 가건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만큼 필요한 30억을 순수 모금으로 채우고자 기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일도 목사는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센터는 다일 천사병원처럼 순수인도 주의적 입장으로 극적과 인종 등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섬기고자 한다. 미주에 계신 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770-813-0899 김고은 원장, pay to: Dail community of USA P.O.Box 337 Suwanee GA 30024. 앤더슨 김 기자

조이플 선교회 제 1회 조이플 선교 수련회 개최



조이플 선교회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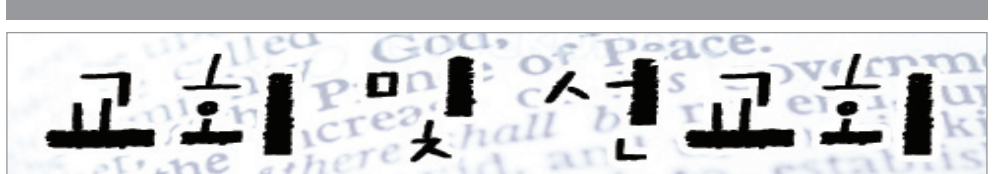
조이플 선교회는 지난 5월 10부터 11일 까지 1박 2일에 걸쳐 올림피아에 소재한 수양관에서 조이플 선교회 회원들과 선교 합창단 단원 대상으로 제 1회 조이플 선교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된 선교 수련회는 김정환 선교사(KWMO)가 주 강사로 나섰으며 둘째날에는 조이플 선교 합창단 박현실 지휘자의 찬양 세미나와 함께 친교하며 화기에 애환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김정환 선교사는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것 처럼 한인 이민역사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으로 시작 되었음을 피력하며 "21세기의 선교는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교사는 "한인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21세기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선교동원을 위해 선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선교동원 시스템을 구성함과 동시에 선교동원 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선교사 파송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인교회와 옛 패러다임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선교동원 패러다임으로 변환하여 소중한 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현자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선교회 회원들이 선교를 향한 도전과 열정, 헌신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선교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음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이플 선교회(대표 장현자 목사)는 국내외 선교사 및 선교지 후원사역,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섬김사역, 예배와 찬양을 통한 위로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65명의 선교 합창단원들이 열심히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이플 선교 합창단은 어려운 난민들을 후원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주일) 오후 5시에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에서 제2회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풀원기자

유소년축구대회 22팀 참가한 축제 한마당 돼

지난 18일(토) 피치트리하이스쿨 축구장에서 열린 제 24회 유소년축구대회가 22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는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와 한인회가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시티호프(난민지역)팀과 한인교회 연합팀이 번의 경기를 펼쳐 멋진 승부

를 펼쳐 이목을 끌었다. 5팀이 출전해 각 2경기씩을 치른 Pre-K 팀의 치열한 공방전 역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향방 없이 뛰고 달리는 어린이들보다는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치는 엄마, 아빠들의 뜨거운 심정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장면도 이어졌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인2세대를 책임지며, 이인기장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합석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이룬다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찬양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1:00
중보기도회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토요일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저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노예배(영인예배) (스페인)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노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부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화-금),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저부 유초등 오전 11:00
중고등부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행함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이준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전 11:45
 5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준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한양청년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심화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심화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들 징계, 본안 판결 까지 무효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장신대 A학생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게시물 ©A학생 SNS 캡처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작년 5월 17일 채플 시간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옷을 입은 장신대 신대원생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본안 판결까지 무효 됐다. 17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장신대 신대원 소속 학생 4명이 장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의견 진술 또한 듣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작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신대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당시 한 학생은 페이스북에 '무지개 언약이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올렸다. 해당 사진이 퍼지자 학교는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법인 장신대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신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결의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당시 신대원 학생 4명은 장신대로부터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동성애 옹호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동성애에 관한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상의를 무지개 색으로 맞춰 입은 것이 학교 학사 행정이 규정한 동성애 반대 여극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 학사 행정은 종립 학교인 장신대 권한에 속했고, 징계도 종립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는데, 재판부가 학교 학사 행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견도 있다. 작년 9월에 열린 103회 예장 통합 총회는 교단 및 산하 7개 신학교 내 동성애 행위자나 조장자·교육자들에게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작년 5월 '무지개 채플' 사태로 신학대 내 분위기가 '친 동성애적'으로 흐를 우려에서 나온 결의였던 셈이다. 당시 총대들은 산하 7개 대학 총장들을 단상으로 불러내,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 요구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무지개 채플' 사태가 친 동성애의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총대들의 성토에 반영된 것이었다. '징계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앞으로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노형구 기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승구 박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세미나 발제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이 2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제54회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이승구 박사(합동신대 조직신학)와 김은수 박사(한국개혁신학연구원 조직신학), 김의창 박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발제하고, 이상용 박사(총신대 조직신학)가 논찬했다. 특히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승구 박사는 '중간 상태'에 대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상태'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전개될 '영광의 상태' 사이의 인간 영혼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했다. 이어 '신자들의 중간 상태'에 대해 "성경에 의하면 신자들은 죽은 뒤에 그 몸은 무덤에 있어도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Michael Scott Horton)의 말을 인용해 "한 마디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모든 신자는 죽을 때 주와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불신자들의 중간 상태에 대해선 "정통과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 밖에서 산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으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명백히 천명해 왔다"며 "죽 불신자들이 중간 상태에 있게 될 곳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이 있게 될 지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칙필레 홈페이지 캡처

칙필레, 美 대학서 동성애 문제로 곤욕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칩필레가 대학가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 대학의 교수들이 투표에서 칩필레를 캠퍼스에서 퇴출시키라고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이번에는 텍사스의 한 대학의 학생회에서 교내에 칩필레 음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모두 동성애, LGBT 이슈 때문이다.

동성애와 LGBT의 표적이 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미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10일 트리니티대학의 학생부가 교내에 칩필레 음식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텍사스 지역 언론인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대학은 특히 텍사스 지역의 사립 인문대학으로, 장로교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칙필레는 이 대학 캠퍼스에 레스토랑을 내지는 않았지만, 학생식당에서 2주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 대학의 학생회는 지난 5월 1일 결의안에서 칩필레가 구세군,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 SK 와이번스의 감독을 지낸 트레이 힐먼, 미국 최고의 야구 선수인 클레이튼 커쇼, 미국 최고의 농구선수인 스테판 커리 등이 소속된 유명 스포츠 선교 단체), 일탈 청소년들에게 거주지 등을 제공해주는 기독교 단체인 PAYH(Paul Anderson Youth Home)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업 평등 지수(Corporate Equality Index)에서 LGBT 직원들을 일터에서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0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또한 칩필레

가 2017년 구세군, FCA, PAYH 등 LGBT에 반대하는 단체에 180만불을 후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캠퍼스에 칩필레가 있는 것에 반대하고 대학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원하고 있다면서, 칩필레가 있기를 원하는 이들보다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의 타이 터너 총학생회장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에 “대학의 LGBT 동아리인 PRIDE를 비롯한 친 LGBT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대학 행정부를 찾아와 항의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면서 “총학생회의 결의안은 대학 행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리니티대학에서 칩필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샌안토니오 시의회가 공학 프로젝트에서 칩필레를 배제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되어 왔다.

반면 총학생회의 칩필레를 겨냥한 반대 운동에 대해 맞서는 텍사스 청년 보수주의자들(YCT, Young Conservatives of Texas) 트리니티 지부의 아이제이아 미첼 회장은 칩필레가 LGBT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칙필레가 후원하는 구세군, FCA와 같은 단체들은 LGBT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 것이 없다”면서 “좌편향 LGBT의 정치적 목표에 대항해 활동하는 것이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칩필레는 약 1년 전 이 대학의 푸드코트 로테이션에 추가됐으며, 대학 측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강해진 기자

웬비어 아버지

“북한은 범죄집단, 김정은은 범죄자”

뉴욕 유엔본부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발언



웬비어 아버지 기자회견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열여섯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웬비어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프레드 웬비어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지칭한 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그에게 ‘위원장’ 지위를 부여했으나 실제로 ‘범죄자 김(정은)’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상대하는 인물에 대한 진실을 말하길 두려워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없고,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웬비어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를 언급하면서 “조 전 대리대사는 부인과 함께 잡적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

에 남겨두었고, 이 때 딸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녀를 납치해 인질로 잡고 있다”며 “북한은 범죄집단이고 폭력배이자 살인범들”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일이 불과 6개월 전에 벌어졌다. 북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웬비어는 지난 2월 네덜란드 정부가 평양으로 향하는 보드카 9만병을 압류한 사실과 최근 북한이 식량 배급량을 하루 300그램(g)으로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 “보드카 9만병을 입수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식빵 4조각밖에 안 준다”며 “이런 오만한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웬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웬비어도 지난 3월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은 지구의 암이다. 우리가 이 암을 무시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8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냄으로 오묘하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특별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동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과외)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백정우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일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도. ALL IN JESUS 복수제 2로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를 맺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주동부
수요성령대명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에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에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에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에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강만능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추가 테러 위협 속 스리랑카 교회 위해 기도 요청”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로 희생된 성 세바스찬 성당의 13세 소녀 스네하(좌)와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제공한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우). ©오픈도어

지난 4월 21일 부활절에 교회, 성당, 호텔 등에서 발생한 연쇄테러로 253명이 사망한 스리랑카에 대해 “여전히 테러 위협이 있으며, 테러에 대한 보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회와 피해자들의 회복이 하루 속히 이뤄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한국오픈도어가 20일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 스리랑카 교회를 위한 긴급 기도 캠페인을 진행 중인 오픈도어는 현장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와 신자들은 기도하고 있다. 새신자들은 이런 사태에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현지 상황을 전해왔다. 이 사역자는 “스리랑카교회연합회는 각 교회에 예배를 드릴 시 교회 주변에 주차하지 말고, 예배당 안으로 배낭 진입을 금지하며, 예배시간 변경 등 안전에 관한 조언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요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교회 예배를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요청 중이고 추가 공격에 대한 부담으로 예배를 중단한 교회도 있다”고 사역자는 전했다.

부활절주일에 일어난 이번 테러는 30년간 내전을 겪은 스리랑카인들에게 옛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현장 사역자는 “지금도 스리랑카 경찰은 검문소에서 자동차 내부를 검열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은 정체가, 이슬람 사원 등이 더 강력한 조사를 받으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굳건한 믿음 안에서 있는 다수의 성숙한 기독교인은 잘 대처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오픈도어는 이 밖에 스리랑카 네교보에 위치한 성 세바스찬 성당의 테러 희생자들에게 대한 사연도 전했다. 13세 소녀 스네하 사빈드리 페르난도는 생애 처음으로 열리는 자신의 생일파티를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대하고 준비하던 중 테러로 삶을 마감했다. 스네하의 어머니는 딸을 향해 작은 새처럼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성 세바스찬 성당에서 일어난 테러로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회계학을 배우는 21세 딸과 총명하던 14살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한 자녀도 생존하지 못했다고 울부짖었다.

한국오픈도어는 “내전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은 지역에 또다시 발생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 교회의 빠른 재건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에서 기독교 탄압이 그치고 종교의 자유가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존 파이퍼 목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2가지 이유”



존 파이퍼 목사. ©패션 콘퍼런스

존 파이퍼 목사가 “두 남성과 두 여성의 성적인 연합은 ‘동성결혼’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결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 신학대학교 총장인 파이퍼 목사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한 청취자가 ‘동성결혼과 동성 간 성적인 관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파이퍼 목사는 “난 두 명의 여성이나 두 명의 남성이 함께 지내며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그에 대한 2가지 이유를 밝혔다.

먼저 파이퍼 목사는 “남성과 여성이 잘못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이성 간의 관계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 결혼은 간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셨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언약의 신실함에 관한 문제가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

의 연합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도록 권면한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선 안 되는 것이었으나, 주님 앞에서 거룩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이 동성 간 관계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약속을 통해 성적으로 연합된 것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이성 간 관계성은 거룩해 질 수 있지만, 동성 간 관계성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나 헌법, 판사, 뉴스에서 수 천 번을 동성 간 결혼이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결혼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불명예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을 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내가 동성 간 성관계에 빠진 두 남성이나 두 여성들에게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어머니의 어머니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가 미국에 이민 온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부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 가셨지만, 외할머니는 살아계셨기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꼭 찾아뵙고 인사 드리라는 부모님의 부탁에 저는 한국에 갈 때 마다 외할머니께 인사드리기를 지난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외할머니의 연세는 103세였습니다. 올해는 104세가 되었고 지금도 저를 보시면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안쓰럽다고 늘 걱정해 주십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마지막(?) 안부를 전하려 찾아뵙는 동안, 외할머니는 저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사위 셋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우신 것을 보면 장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 내 어머니의 어머니이니 더 오래 사셔서 어머니의

기뻐할 언덕으로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아버지는 성가대 지휘자로, 어머니는 반주자로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마다 성가대 칸타타, 캐롤링 및 연극 등으로 연말 연시를 늘 바쁘게 보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머리이셨던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오실 때 김포공항에서 가발을 쓰고 배웅하시는 목사님과 교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각으로 살겠다면서 가

발 쓴 이유를 밝히 시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음악만 가르치셨던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며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셨던 모습은 제가 공부하면서 결코 한눈팔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미국에 오셔서 시간당 수당을 받는 노동부터 아이스크림 가게, 미니마켓 그리고 세탁소까지, 몸이 닳도록 수고하시며 저의 대학과 신학교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뛰어든 목회는 부모님을 조금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명절 등에 찾아 뵈 수도 없는 불효막심한, 내놓은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였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넘기며, 외할머니도 아직 살아 계시니 아버지께 효도할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뵈기를 권합니다.

생명을 심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였지만 심기어지니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 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내가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과 능력은 좋은 환경과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이 더 잘합니다. 다저스 야구장 같은 곳에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즐겨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L.A. 아주사 거리의 작은 집과 허름한 창고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20세기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예수 생명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예수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된 것도 청교도의 신앙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근 수십년간 미국 각계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 하는 등 반기독교적 흐름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문체와 약함을 지적하고 퍼뜨림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눅 들어 아무 것도 못하는 기독교 패배주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설사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까지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까지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합장과 반배를 했어야만 하는가?

크리스천 야당 대표가 한 사찰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는 합장도 반배도 하지 않았다. 언론은 “논란”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필자는 논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이것을 “논란”이라고 지칭하고 설왕설래하는 한국 사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봉축법요식이었다면, 분명히 삼귀의례를 했을 것이다. ‘삼귀의’란 불(부처)-법(진리, 가르침)-승(승가)에 귀의한다고 예를 표하는 종교의식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부처에 귀의할 수 없기에, 공손하게 손을 모은 자세로 합장과 반배를 하지 않은 황대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지사지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회에 초대받아 예배에 참석한 불교도 정치인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만약 인권을 소중히 한다는 여당 인사들이나 황 대표를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상황을 ‘무슬림’으로 바꾸어 질문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히려 역정을 내며 어떻게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불교의식의 종교 예법을 무슬림에게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할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슬람권 유학생을 위해 대학이 할랄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특별



이 정 훈 교수
울산대 법학과

히 기도처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적 의무’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왜 기독교인의 신앙은 인권이 아니라 무례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일까?

필자는 기독교 대학에서 체플 학점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대학은 선택 가능하고 기독교 대학임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체플을 졸업 필수 학점으로 학칙을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없다.

한 불교종립대학에서 “자아와 명상” 시간에 불상을 향해 3번 절하는 것을 강요받은 기독교인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서 피해 학생에게 전문가로서 조언한 바 있는 필자로서는 소위 인권 타령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왜 기독교인에게만 가혹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체플은 수업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업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받거나 적극적으로 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는다. 특정 종교의식인 ‘삼배’라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설령 불교 대학임을 알고 입학한 기독교도 학생일지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종교 강요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황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박탈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반인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혹자는 기독교인이 불교 행사에는 왜 참석했느냐고 비난한다. 그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교나 불교 신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위치에 있다. 그의 불교 행사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에게 타 종교의식의 예법을 강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당연한 행동을 비난하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예의상 불교 행사에 참석한 기독교도 정치인에게 종교의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의고 상식이다.

논란이 될 수 없는 논란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GAIA COR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저열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 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 코디세린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됨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prozusa1@gmail.com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된 이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 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의 경신을 꾀하는 교회, 소그룹과 양육 중심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 이민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상을 가진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비전에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당회원) 3년 이상 경험하신 분
- 소속 : PCUSA 소속 또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PCUSA 가입 가능한 분
- 언어 : 영어와 한국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
- 신분 :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한사항 : 본 교회의 현재 사역자나 또는 지난 7년내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Personal Information Form (PIF, Revised 3/2016, 개인정보양식)을 다운받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PCUSA website https://oga.pcusa.org)
- 추천서 2통(봉인)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사본
- 목회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분 (USB 또는CD)
- 본인사진

제출마감 2019년 6월 11일 (우편소인)
보내실곳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ttn: KCPC PNC (Pastor Nominating Committee)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문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청빙위원장

PCU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교회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Ministry Information Form (사역정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F와 PIF 양식은 본교회 청빙안내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yunhap.org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현장까지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THC Free
환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망한 천연식물제입니다.
-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비노이드를 자리에 영감을 줄여주는 일, 뇌기능 저하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ABA는 미국임상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 만성질환,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마씨 엑스트랙트는 미국 타일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면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e)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니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250 + tax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漢方漢藥 首席 顧問

“고난의 시간, 하나님은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영화 <교회오빠> 故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上)

2017년 KBS 1TV 성탄특집 2부작 스페셜(다큐멘터리) 제목은 '얇: 교회오빠'였다. '성탄절에까지 교회를 핍박하려나' 하고 한숨을 쉬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자신과 가정에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한 평범한 30대 남성이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낸 것이다. 암 투병 중인 이들부터 낙심해 교회를 잠시 떠났던 이들까지,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이관희 집사는 결국 지난해 9월 16일, 자신이 세상으로 불려온 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추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 곁에 찾아왔다. 오는 5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이관희 집사를 가장 잘 아는 아내 오은주 집사가 영화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남편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두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투병했던 병원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로 지내는 중

-이관희 집사님이 천국으로 이사가신 뒤, 지난 6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슬퍼하면서 보냈어요. 온전히 슬픔을 수용하고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하셔서, 애도의 기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더라고요.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바쁜 게 좀 지나가니 슬픔이 물러왔습니다.

1월부터는 직장생활도 시작했어요. 예배와 찬양 반주로도 섬기면서, 병원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교사로 있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진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족에게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요.

“아멘.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저를 이렇게 이끌고 계심에 대해 신

뢰하고, 제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더 깊게 만나

-우리는 왜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웃음). 그러지 않고 만나도 참 좋고 그러지 않고 만나는 분들도 많지만, 각자의 분량만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옴은 병이 낫고 가족이 다시 생기고 갑절의 부를 얻는 등,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남겨진 오 집사님이 옴과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까.

“살아있는 게 물론 축복이지만, 옴기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는 것만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너무 귀하게 감당하고, 슬픔과 수고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단명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이 집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병 중에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옴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옴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오빠의 병도 다 고쳐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부어 주시고 자식도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더니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가르쳐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옴기의 진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정금같이 단련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았고, 단련되는 과정 중인 사람입니다.더불어 저희 남편이 이 시대의 옴과 같은 사람이라고 회자된다면, 돕는 배필로서 그 사람이 남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하는 옴기 42장 5절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100% 동의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



5월 초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난 오은주 집사는 투병 중이던 촬영 당시에 비해 몸이 많이 회복돼 보였다.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고 고백했다.

않을까 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안아주시는 것 같은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결혼하셨을텐데, 알고 보니 남편 이 집사님은 신앙인으로서 전혀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시네요.

“교회 오빠'의 표본이었기에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잘 하고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웃음),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가오는 환경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했고, 가족들에게 정말 잘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해서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잘 비춰지지 않지만, 남편에게 왜 힘들어하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들도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좋다는 치료법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고3 때도 안 그랬는데 관련 서적을 모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간 화를 내면서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좀 서운했지요. 도와주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달랐던 것이지요. 저도 아픔을 겪으면서, '남편이 옳았구나' 하고 깨닫는 시점이 왔습니다.”

남편의 죽음, 한 알의 밀알 되어 많은 영혼에게 생명 주길

-이관희 집사님이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유산을 남겼지요. 가족에게는 아주 진하게 새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 죽음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절망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끝까지 보여주고 갔습니다. 남편이 비록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있지만, 죽음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투병 중에, 그리고 이 집사님이 떠난 뒤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아플 때 시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한 절 한 절이 다 회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라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이 워낙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도 많이 했기에, 상황마다 주어진 말씀들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재발하고 수술하기 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니다. 말씀대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으리라고 신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에스겔 37장 말씀이 가장 힘이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른 뼈같이 죽어 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남편의 죽음에 결코 헛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슬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김신의 기자

2019년 평화통일기원 LA음악회

철원군 Cheorwon LAiCA Los Angeles in Christ Alone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미국서부순회연주

WE ARE ONE

Sunday, June 2, 2019 7:30 PM
Zipper Hall 20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

지휘 장혜원

Special Guests

소프라노 신선미 바이올린 김유은 LA 남성선교합창단

철원소년소녀합창단 Cheorwon Boys & Girls Choir

기독교일보, 무료 목회자 프로필 촬영 행사 마쳐

“앞으로도 ‘작은교회 지원 사업’ 지속할 것, 하반기에도 이벤트 진행할 계획”

기독교일보 주최 목회자 프로필 무료 사진 촬영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진작가 스캇 김씨가 촬영을 맡아 수준 높은 프로필 사진을 완성해 전달했으며, 이 행사에 참여한 목회자들 모두 기대한 것보다 더 근사하게 나왔다며 만족해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목회자는 “귀한 일로 섬겨주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독교일보는 어려운 이민사회 현장에서 한인들을 섬기고 계신 한인

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작은교회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작은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독교일보는 “목회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통해 한인교계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하겠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윤병준 목사 (남가주뉴비전교회)



윤목 목사 (한인소망교회)



김종용 목사 (나눔과성김의교회)



정해진 목사 (남가주명성교회)



이정현 목사 (만남의교회)



조희서 목사 (서울세티교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곽부환 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안경진 목사 (마가교회)



김갑부 목사 (만남의교회)



최경일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황만호 목사 (만남의교회)

UMC 내 동성애자 지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 나와



미 연합감리교(UMC) 총회를 1년 여 앞두고 동성애자 지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UMC는 지난 2월 개최된 특별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전통주의 계획’(Traditional Plan)을 찬성 461, 반대 359로 통과시켰으나, 이후 진보성향 및 동성에 커플인 목회자들

이 동성애 정책을 수용해달라는 입장을 촉구하며 동성애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자신이 동성애 목회자라고 고백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참지 못하겠다”며 “총회에서 동성애 정책이 허용되면 곧바로 결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급진적인 성향의 감리교 목회자들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회자들 역시 연합감리교회 동

성애 반대 정책의 변경을 위해 로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페기 A. 존슨 주교는 “UMC는 동성애 정책을 당분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총회 이후 지금까지 교단 탈퇴를 원한다는 교회의 통보는 아직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신다’(God in Love Unites Us)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감리교 내에서 ‘결혼과 관계성’을 다루는 그룹에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5년 동안 시민연합 등을 포함한 동성애 관계성에 대한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조명할 뿐 아니라 작년 이성 커플에게도 시민연합의 관계성을 허용키로 한 정부의 발표도 다루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위수여자
M.Div. | 조현숙, 최영호, 박재민, 송해민

일시: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여름학기 학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6월 20일

입학상담: 213-272-6031



무속신앙과 가까웠던 불신자, 열혈 기독교인이 되다

[인터뷰] <1919 유관순> 윤학렬 감독

안티 크리스천이었고 불신자 중 불신자였던 윤학렬 감독. 그는 '오박 사네 사람들', 'LA 아이랑' 등 시트콤 1세대 방송 작가로 활동하다, '오! 해피데이'를 통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특히 그는 무속인들의 투자로 드라마 제작사까지 설립할 정도로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다.

그런 윤학렬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이야기와 지역교회의 사명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 <1919 유관순>도 연출했다. 최근 서울 흥대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전도 영화 관람 운동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 원래 불신자로 무속신앙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희곡을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면 곳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신과 제사, 절대지를 숭배하는 행위에서 음악, 연극, 미술, 모든 예술 모든 문화가 파생되거든요.

민속학을 부전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속인과 교류하면서 이름을 날리면서 보람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윤학렬 감독.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또 어떤 택시 기사님은 장로님인데 제게 ‘특별한 분 같다’고 기도해줘도 되겠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불자는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좋아해요. 참 여러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형외과에 계신 권사님이 강도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쨌든 먼 길에서 기도해 주러 오셨으니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20년도 더 된 오래 전 작은 교회에서

이 있었구나. 3.1운동이 단순히 나라를 되찾으려 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던 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 <1919 유관순>은 기독교 영화인데요, 기독교 영화는 처음인가요?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도 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고, 중국집 배달하시던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불우한 고아 출신이시고 전과 4범인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후 고시원에 살고 월 72만 원을 벌면서 많은 어린이를 도와주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사람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집단 따돌림, 청년 자살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하며, 대다수 다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또 지역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 <1919 유관순>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당시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당시 이승만 장로가 제헌국회에서 목사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 전 모두가 무서워할 때 소녀 유관순은 광장에 나

귀한 줄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이 ‘정말 저랬었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탈북청소년을 보면 평평 울면서 못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목사님들도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얘기 해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민감해지니, 하나님께서 우릴 그냥 만들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문화와 관련된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시려는 거 같았어요.

문화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문화의 도구가 달라 집니다. 영화와 영상이 복음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복음의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김신의 기자

“당시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 영화로 사명 되찾았으면”
“문화를 통해 복음의 불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쉽게 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국 땅이 선교사들이 오기까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분들의 피로 이 땅이 축복받게 된 것을 알게 됐죠.”

-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나요?

“무속인 드라마 제작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거기 권사님이 절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하시더니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한 번 데리고 나가려고 새벽 2-3시까지 기다리기도 하셨죠. 한 번은 어떤 개그맨 분이 절 찾아와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주더니 ‘나의 하나님이 감독님을 사랑하십니다’며 우는 겁니다. 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왜 우는지 몰랐고,

새벽기도한 장면이 스치는 거예요. 그때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후 집에 있던 부적도 다 떼고 장모님도 다른 종교를 믿으셨는데, 가족 복음화가 다 됐습니다.”

- <1919 유관순>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원래는 북한 인권 영화를 준비했었어요.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던가, 북한의 잘못된 구조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가진 인권 영화를 만들려 했었죠. 그러다 작년에 서대문역을 가는 도중 어떤 약속이 취소되면서 옆에 있던 서대문형무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서대문 8호 감방이 재현돼 있는데, 100년 전 기독교 여성 운동가의 삶이 다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눈에 선명히 보였어요. ‘이런 신앙인들



영화 '1919유관순' 메인 포스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L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